

| 기획취재_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심포지엄 |

“전북 상생형 일자리를 찾아라”

전라북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나서 위기 극복 위해 지속가능한 고용체제 마련에 주력

박석모 <참여와혁신> 기획이사

전라북도가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생형 일자리 모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25일 전북도청에서 ‘협력과 상생의 아름다운 동행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노사민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노사민정 심포지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

원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민과 관내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송하진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최근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가시화돼 그간 어려운 전북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다가 오고 있다”면서 “도내 지역별 산업생태계와 기업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생형 좋은 일자리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이날 심포지엄과 같은) 공론화 자리를 통해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순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포용적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문성현 위원장은 “향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가야 할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오랫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노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를 재구축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병규 특보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의 혁신을 지향하는 일자리”라고 소개한 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일터혁신,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와 개혁적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명준 실장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도구적으로 간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역에서의 소통을 위한 자각과 사회 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핵심적 가치이자 방법론”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좌장은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이 맡았으며, 채준호 전북대 교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손영우 전문위원, 한국노총 전북본부 심병국 총무국장,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 이정권 부회장,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

했다.

토론자들은 전북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의식 공유,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나석훈 국장은 특히 “5월 중으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역 내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약 체결로 광주형 일자리가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지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안착을 더욱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심포지엄은 물론, 군산시 차원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